

# IMF 이후 휘발유소비 14% 감소

## 하루소비량 19만4천배럴에서 16만7천배럴로 줄어

IMF 이후 국내 휘발유소비가 소비심리 위축으로 1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 조사팀 분석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국내 휘발유소비는 하루 16만7천배럴로 전년동기의 19만4천배럴에 비해 14.2% 감소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소득감소 및 휘발유 가격인상에 따른 자동차 운행자제와 승용차의 소형화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올연말까지도 이러한 소비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금년의 휘발유소비는 전년대비 14.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도 역시 휘발유가격이 환율안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올해보다 배럴당 1\$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 소비는 금년 수준에서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월별소비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에 하루 19만5천 배럴에 달했던 소비량이 IMF관리체제 초기였던 지난 1월에는 환율 폭등과 두차례의 교통세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의 여파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25.2%가 급감한 데 이어 2월 중에도 14.6%가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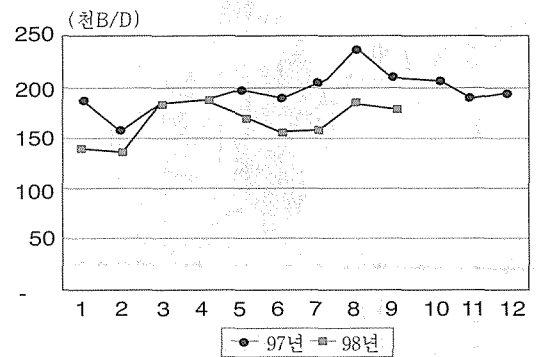
3월 들어 휘발유가격은 또 한 차례의 교통세 인상 등으로 여전히 높은 리터당 1천 42원을 기록했지만 1, 2월과 비교시 가격하락이 지속된 탓인지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즉 3월 중 하루 소비는 전년동기와 비교시 불과 0.1% 감소에 그쳤으며,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했던 4월 (리터당 1천41원)에도 0.7% 감소에 그쳐 IMF초기 단계에 비해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5월 중에도 1천 41원으로 3월 이후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지난해 휘발유의 가수

요 현상등으로 전년동기와 비교시 10.5%의 감소를 나타냈으나, 이 역시 휘발유가격이 1천1백40원~1천2백원 대를 넘나들던 지난 1~2월과 비교시 감소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 교통세 인상으로 유가가 1천83원으로 인상된 6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15.4%가 감소한데 이어 7,8월에도 각각 21.1%, 22.2%의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9월에도 교통세 인상에 따른 가격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비량은 전년동기대비 14.2%가 감소했는데, 여기에는 작년 9월의 추석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정부의 각종 제세공과금 부과로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비싸다. 주요국의 휘발유가격(소비자)을 지수(우리나라=100)로 비교해 보면, 영국 123, 네덜란드 117, 프랑스 114, 이탈리아 110 등으로 유럽제국이 상대적으로 높고 아시아에서는 대만 55, 일본 75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 ☹

월별 휘발유 소비추이



월별 휘발유소비 및 가격

	'9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9월
물량(천B/D)	138	134	182	187	174	159	162	185	177	167
증감률(%)	△25.2	△14.6	△0.1	△0.7	△10.5	△15.4	△21.1	△22.2	△15.0	△14.2
가격(원/l)	1,143	1,190	1,042	1,041	1,041	1,083	1,082	1,082	1,149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